

##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11:1-10(현대인의 성경)

### 1. 말씀

- 1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 2 하나님은 처음부터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걸어 하나님께 고발한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 3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 버렸으며 살아 남은 예언자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머지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4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 우상을 섬기지 않은 사람 7,000 명을 남겨 두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 5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 6 그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진정한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 7 그렇다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고 선택받은 사람들만 얻었으며 나머지는 완고해지고 말았습니다.
- 8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그들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오늘날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셨다"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 9 다윗도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들의 식탁이 올라미와 덧과 거치적거리는 장애물과 죄값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 10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어 있게 하소서."

###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 3. 메시지

-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

→ \_\_\_\_\_

- 7-8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 \_\_\_\_\_

- 9-10절에서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이러한 기도에서 우리는 인간의 분노와 하나님의 정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 \_\_\_\_\_

-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 \_\_\_\_\_

- 내 마음이나 행동 중 하나님께서 "완고하다"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 \_\_\_\_\_

-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인간의 완고함과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조화된다고 생각합니까?

→ \_\_\_\_\_

###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_\_\_\_\_

-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 나의 판단이나 불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_\_\_\_\_

-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11:1-10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였으므로 버림을 받은 것인가? 라는 질문에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되 그 중에서 소수를 남겨 복의 담당자로 쓰신다는 '남은 자' 사상을 인용하여,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약속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살아있는 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인한 남은 자들로 인하여 완악한 다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것과 같은 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으며, 소수의 유대인들이 여전히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통해,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간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으로 소멸되고 마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남은 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가 될 것인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주님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남은 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6. 기도